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복지”

2005 주요업무계획

2005. 2. 16

복지건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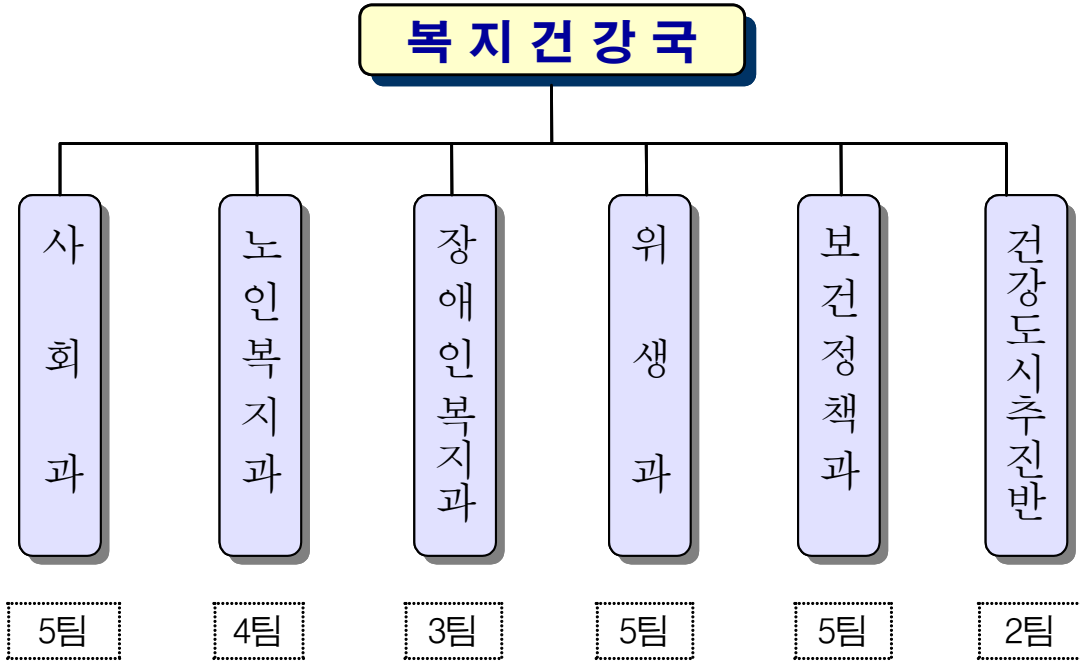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정 책 방 향
- 2005중점추진과제
- 주 요 업 무 계 획

일 반 현 황

□ 조 직

○ 본 청 : 5과 1추진반, 24팀



- 사 업 소 : 4개소 (보건환경연구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 민간위탁 : 6개소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
- 재단·공사 : 2개소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 인 력 — 정원 1,217명, 현원 1,193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비 고
정 원	1,217	844	251	15	107	
현 원	1,193	826	245	14	108	
과부족	△24	△18	△6	△1	1	

□ 2005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	2004 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489,674	1,402,001	87,673	6.3
일반회계	소 계	1,153,874	1,094,712	59,162	5.4
	사회복지	991,124	959,380	31,744	3.3
	보건	162,750	135,332	27,418	20.3
특별회계	의료급여	335,800	307,289	28,511	9.3

□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4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227,599	197,533	30,066	15.2
식품진흥기금		62,489	54,513	7,976	14.6
재해구호기금		157,504	132,674	24,830	18.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89	2,388	△1,099	△46.2
	장애인복지계정	2,238	3,544	△1,306	△36.9
	기초생활계정	4,079	4,414	△335	△7.6

정 책 방 향

세계일류 복지·건강도시“서울”실현

■ “量” 중심에서 “質”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 전환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재단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 독거노인, 쪽방거주자 등 틈새계층 보호
- 노숙인 보호체계 정비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사회 진입 → 치매노인보호, 고령자 취업 활성화
- 장애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욕구 증대 →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응 지원

■ 식품안전 및 시민건강관리 강화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체계 구축
-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 보건의료 지역역량 강화

➡ 21세기 서울형 복지 실현

2005 중점추진과제

- 저소득시민 보호
- 노인복지 증진
- 장애인복지 수준향상
- 수준 높은 식품위생환경 조성
- 시민건강 보호
- 건강·안전도시추진

저소득시민보호

1.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

- ◆ 근로능력 유무·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시민에게 기초생활 보장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적기지원 등 법정지원을 내실화하고, 대도시 기준 최저생계비 충족을 위해 현금 또는 현물 추가 지원
- ◆ 법정요건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 시 자체 특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보호

- 수급자 현황 : 총 88,876가구 169,251명 (2004.12월 현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원)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begin{aligned}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가구소득)}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end{aligned}$$

※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기본재산)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 기초공제액 : 3,800만원(대도시)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요예산 : 247,248백만원(생계급여 233,171, 교육급여 14,077)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가 급여

- 저소득자녀 교육경비 지급 : 6,539백만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34,245명
 - 초등생 14,131명, 중등생 9,610명, 고등생 10,504명
 - 지원기준
 - 중·고생 교통비(1,280원/연240일), 초등생 학용품비(연25천원)
- 명절위문품(연2회, 설·추석) : 5,243백만원
 - 지원기준 : 가구당 3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 지급
- 월동대책비 지원 : 4,588백만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보훈 대상자
 - 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 상당(양곡 20kg구입비)
- 긴급구호 : 450백만원
 - 대 상 : 일시적 실업,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 1회 1인 74,000원, 가족수에 따라 지원
- 결식 중·고생 중식비지원 : 1,721백만원
 - 대 상 : 중·고생 결식학생 3,824명
 - 지원기준 : 1식 2,500원, 연 180일(방학기간 제외)

□ 저소득특새계층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법정요건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
- 현 황 : 3,714가구 3,768명(2005.2월 현재)
- 지원내역
 - 근로가능자(경노무) : 『특별취로』로 소득보전(가구당 월 30만원 수준)
 - 근로무능력자(고령·질병) : 『특별구호』 생계지원(1인당 월 107,400원)
- 소요예산 : 6,844백만원

2. 노숙인 보호와 자활지원의 내실화

노숙인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거리(공공시설)노숙인에 대한 입소를 유도하고, 쉼터중심의 보호체계를 상담보호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보호대책의 거점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숙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재활·자활대책 강구, 시행

노숙인 현황 : 3,222명 (시설입소자 2,524, 거리노숙인 698)

시설입소자				거리 노숙인
계	쉼터	중간쉼터	상담보호센터	
2,524명	2,260명	84명	180명	698명

추진계획

-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운영 강화
 - 상담보호센터 확충 : 3개소(200명) → 4개소 (500명)
 - 이용자의 편의성 및 자율성 최대한 보장
 - 이용유도반, 진료반 운영 : 05.3.1부터
- 쉼터 등 보호시설 운영 개선 - 특성에 맞는 보호체제로 개편
 - 재활가능성,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쉼터
 - 일시보호 후 부랑인시설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노숙인 쉼터
- 자활대책 강구 시행
 -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도
 - 일거리 창출 :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청소
 - 쪽방 확보 (쉼터 → 쪽방 → 임대아파트)

소요예산 : 11,629백만원

3. 저소득시민 자립·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 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능력개발 및 소득향상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자활사업 참여현황

계	조건부수급자	기타 저소득시민
15,338명	4,990명	10,348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추진계획

- 자활사업 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자활공동체 육성 및 점포 임대 등을 위한 기금 지원
- 내실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급자의 실질적 자활능력 배양
 - 단계별 자활경로를 거쳐 상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
 - 재활·지역봉사 → 자활근로사업 → 자활공동체 → 자립·자활
- 대상사업 :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활사업 제공
 - 취업대상자 : 취업알선, 직업훈련(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의뢰)
 - 비취업대상자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사업 등 참여
- 사업비 : 총 36,539백만원
 - 자활근로 32,256, 자활후견기관 3,970, 지역봉사·사회적응프로그램 313

4. 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사회복지관을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종합 복지서비스 센터로 육성하고 지역 여건과 수혜자 욕구의 다양한 복지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 강화 추진

□ 사회복지관 현황 : 93개소

계	가형 (2000㎡이상)	나형 (1000㎡이상~2000㎡미만)	다형 (1000㎡미만)
93	37	50	6

※ 2005년 3개소 개관 예정 (성북 월곡, 구로 본동, 서대문 홍은)

□ 추진계획

- 사회복지관의 30% 기능 특화·전환 추진(2006년까지)
 -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 특화
 - 지금까지 추진현황 : 17개소 (전환 1, 특화 16)
 - 「구립노인전문요양원」 등 신규 시설 수요 발생시 적극 전환 추진
- 복지관 운영 내실화 방안 추진
 - 운영실적평가를 통한 운영환경 개선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보조금 교부 및 심사기준 개선 → 예산·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관 운영모델 정립
 - 회계검사, 정밀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표준운영모델 개발
 -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 규모 및 기준 설정
- 시설확충 및 기능 보강
 - 건립지원 : 3개소(2005 완공예정 - 성북 월곡, 구로 본동, 서대문 홍은)
 - 전기, 가스 등 노후설비 개·보수 등 : 34개소 → 시설 안전관리 강화
 -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교실 장비 보강 등 : 63개소 → 시설 기능 강화

5. 기초푸드마켓 자치구 확대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민 및 단체와 연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지원연계망 구축

□ 운영개요

- 운영형태 : 기탁자와 수혜자가 직접 방문, 기탁·선택하는 가게 형태
- 설치규모 : 20평 내외(자치구 확보)
- 이용대상 :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시민
 - 회원이용카드 발급, 회원제 운영 원칙
- 취급물품 : 쌀, 채소 등 농수축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및 기타 식자재 등

□ 추진계획

- 2005년 설치 계획 : 2개소(4개 권역별 설치 완료)
 - 2003년 도봉구 창동 시범운영, 2004년 자치구 1호점 개설(양천구)
- 설치 선정 기준
 - 사업의 적정성, 수행능력, 기관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
 - 교통이 편리한 장소와 건물 1층(20평이상) 확보 여부
 - 자치구 직접 주관 또는 위탁운영체 선정 운영
 - 전담직원의 지역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인력 확보 운영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탁물품 확보체계를 개발 운영
- 자치구 지원방안
 - 푸드마켓과 기초푸드뱅크를 연계하는 사업 모델 개발 지원
 - 현행 푸드마켓 형태 · 조리식품 취급 푸드마켓
 - 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복지상담, 사랑방역할의 푸드마켓 등
 - 초기 설치비용 시비지원 : 80,000천원(1개소당)

노인복지증진

1. 고령자 취업활성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 등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코자 함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 일 시 : 2005. 9.22 ~ 23(예정)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 개최규모 : 300여개 업체, 3만여명 이상 참가, 3,500명 이상 취업

○ 소요예산 : 150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

○ 사업개요

- 목 표 : 5,040명 이상(2004년 대비 44% 확대)
- 사업수행 : 시 및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구 노인인력지원기관)
- 참여대상 : 60~65세 이상인 자로서 참여희망자 선발(6개월단위 계약)
- 사업유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65%)	교육복지형 노인일자리(20%)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15%)	
	교육형(15%)	복지형(5%)	인력과건형(10%)	시장형(5%)

○ 소요예산 : 5,933백만원(국비 1,711 시비 2,133, 자치구비 2,089)

※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충 : 지하철 지킴이, 교통서포터즈 활용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단체에게
사업비 지원(수익금은 참여노인에게 공동배분 및 적립)
- 지원액 : 시설별 연 150백만원(종로·남부·강남·도봉)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취업전문과정 : 13개 직종 연 27회 1,000명 교육목표
 - 경비원교육, 컴퓨터교육, 창업교육, 배달원교육, 번역교육 등
 - 2004. 12월말 기준 12개직종 900명 교육실시
- 취업적응과정 : 직장적응 소양교육(연 20회 1,000명 교육목표)
 - 2004. 12월말 기준 19회 783명 교육실시

○ 소요예산 : 99백만원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 시설현황 : 13개소 29명(상담원 28명, 정보처리기사 1명)
- 취업실적 : 취업상담 58,222명, 취업알선 7,133명, 취업 4,307명(2004년말)
- 소요예산 : 826백만원

2. 치매노인 보호체계 강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경감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목표

- 공적 보호시설 확충으로 치매노인 가족부담 경감
 -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무료요양시설 : '06년 100% 충족
 - 일반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 '06년 50% 충족
-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노인 현황 및 시설확충 계획

- 연차별 시설확충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치매노인 현황				
○ 치매노인	49,000명	55,000명	58,000명	62,000명
○ 보호대상	4,130명	4,650명	4,910명	5,180명
- 저소득자	1,030명	1,150명	1,210명	1,280명
- 일반시민	3,100명	3,500명	3,700명	3,900명
시설확충계획				
○ 무료시설	5개소 689명 (69%)	11개소 1,129명 (98%)	11개소 1,129명 (98%)	12개소 1,294명 (100%)
○ 실비시설	29개소 633명 (20%)	54개소 1,065명 (31%)	67개소 1,660명 (45%)	77개소 2,255명 (58%)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확충
 - 수유 노인전문요양원 60명 확충(2005. 5월)
 - ※ 총사업비 : 2,230백만원

○ 일반 시민을 위한 실비 시립 전문요양시설 권역별(동·서부) 건립

- 동부 노인전문요양센터(250명) : '03.11.24.공사착공, '05.7월 개관

-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250명) : '03.12.27.부지매입, '06.5월 개관

※ 총사업비 : 16,704백만원

○ 1구 1 실비전문요양시설 확보를 위한 구립시설 건립비 지원

- 자치구별 50~70병상 규모의 구립 전문요양시설 건립비 전액 지원

(건립부지 자치구 확보, 강남구·중구·서초구는 50% 지원)

- 2005년 건립추진 : 동작, 용산, 영등포, 노원, 금천, 강동

○ 지역단위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

- 치매노인 낮 시간 보호, 단기간 보호(3개월)를 위한 재가노인시설 확충

('02년 28개소 533명 → '05. 61개소로 확충 1,085명)

- 전문요양원 등 신규 건립시설의 주·단기보호시설 기능 확대

□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치매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26개소(종합상담센터 1, 보건소상담센터 25)

- 치매예방 교육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간병·간호 실습교육 강화

○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서비스 강화

- 가정도우미(388명), 유급가정봉사원(75명)은 중증수혜자 중심 운영

- 무급가정봉사원(1,791명)은 거동가능 노인 등 경증수혜자 서비스 지원

○ 치매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시설 설치

- 공공기관 최초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내 병설 건립·운영

3. 장사문화 진흥시책 추진

시민의 화장문화 정착('04년 65% 추정)에 따라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시민 정서에 부합하고 효문화가 살아나는 화장문화를 발굴·보급하는 장사문화 진흥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 장사시설 확충·운영의 내실화

○ 구형 화장로 16기 교체(2003 ~ 2006년)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2005. 1. 1 시행)에 적합토록 노후 화장로를 최첨단·친환경 화장로로 교체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기씩 순차적으로 교체

※ 사업예산 : 총 9,990백만원

○ 시립 산골시설(추모의 숲) 확장·운영

- 시립 용미리묘지 내에 A구역 3,550평(2003. 6월조성)과 연계하여 B구역 3,160평을 추가 조성(2004. 12월)식재 및 4개 꽃단지 조성, 중앙에 추모장소 마련
 - 정자, 파고라, 분수대, 쉼터 등을 추가 설치 : 휴식공간 제공
- 향후 자연·수목형 산골장 추가조성 검토

※ 사업예산 : 총 1,198백만원

○ 시립묘지 공원화 및 장사시설 보수·보강

- 시립묘지 차폐용 수목식재(도로변, 묘지간 등), 개장지 나무식재 등
- 시립묘지내 노후시설(도로, 배수로, 축대 등) 보수 및 보강
- 강우시 불편 해소를 위해 승화원(화장장)내 캐노피 설치

※ 사업예산 : 총 932백만원

□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개선사업 추진

○ 화장문화 이론구축·화장용품 실용화 연구 및 실천 권장

- 효 문화·인륜도덕 증진을 위한 화장의례 발굴시행
- 친환경적이고 유족부담을 경감하는 화장용품 모델 발굴 및 권장

※ 사업예산 : 총 30백만원

○ 산골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산골모형 공모사업 시행

- 개인·문중·종교단체별 친자연·친환경적인 산골모형 개발 제시
- 국민공모를 통한 산골문화 확산 및 다양한 장사방법 제시

※ 사업예산 : 총 30백만원

○ 장사시설 친근화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 봄·가을 성묘일전(청명·추석) 다양한 장사문화 이벤트를 개최, 장사시설 친근화 도모 및 분산성묘 유도
- 시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건하면서도 밝은 추모문화 브랜드 개발
 - 추모 거북이 마라톤·건강걷기 대회, 미술·사진·서예전, 음악회 등 개최
 - 서울 장사문화제(영산대제, 진혼굿, 콘서트, 교향악단 연주 등) 개최

※ 사업예산 : 총 72백만원

○ 장례식장 상거래질서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

- 장례식장 민·관 합동점검 및 표준가격 검증·확인(년 2회)
 - 시민단체·장례전문가·자치구공무원이 합동으로 방문 점검
- 장례식장별 제시가격을 조사, 인터넷에 공시
 - 장례식장 사용료, 장례용품 및 대표음식 가격 등과 총 장례비용
 - 게시방법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유관기관 인터넷 게시
- 장례식장업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년 1회)
 -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장사관련 법규해설, 서비스수준향상 방안 등

장애인복지 수준향상

1. 장애인이동권 확보

-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환경 조성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내실화로 door to door 이동 실현

□ 추진개요

- 지하철 1역사 1엘리베이터 이상 설치 : 2005년 상반기 완료
 - 235개 역사 551대(2004년) → ^(93대) 258개 역사 644대(2005년)
 - ※ 민자사업 23대는 2006년 완료 예정
-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 연차적 확대 : 노후버스 대체차시 일정비율 도입
 - 98대(2004년) → ^(67대) 165대(2005년) → ^(213대) 378대(2006년)
- 장애인콜택시 및 심부름센터 운영 개선 · 확대
 -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100대)
 - 이용대상 조정, 지체중증장애인 중심 운영(2005.3.1부터 시행)
 - ※ 시각 및 신장장애인은 노원심부름센터 차량 이용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콜센터 직접 운영(2005.7.1부터 시행)
 - 지방 및 외국 휠체어장애인에게 이용 개방(2005.3.1부터 시행)
 - 노원심부름센터 차량확대(40대 → 68대)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내실화
 - 자치구 소식지 등의 홍보매체 및 복지관을 활용 홍보강화
 - 이용율이 적은 노선은 정류장 조정 등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시행
-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 1개소
 - 확대계획 : 개인택시 900대(2003)→1,000대(2004)→1,200대(2006)

2.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로 『무장애 공간』 마련
-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편의 체감을 제고

□ 추진개요

○ 연도별 중점사업 선정·정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학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철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 2002~2005년 미정비 시설 • '98이후 신규 시설 등 미정비된 시설 집중 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 중심 확충 및 정비로 체감 설치율 제고

- 정비목표 상향조정 시행 : 91%(2004) → 93%^(2%)(2005) → 95%^(2%)(2006)
- ※ 당초(4개년계획) 정비목표 : 88%(2004) → 91%(2005) → 95%(2006)
- ※ 2004.12.31현재 정비실적 : 209,684개소 중 191,322개소(91.2%) 정비, 미정비시설 18,362개소
- 신규시설은 지원센터 등을 활용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설치 유도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신규·기존장애인편의시설일체를 지정조사표에 기록
- 조사방법 : 자치구별로 공무원, 장애인, 전문가, 편의시설설치시민
추진단원, 편의시설 전공학생을 조사원으로 위촉·조사
- 조사기간 : 2005. 4월 ~ 10월(200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모범장애인편의시설 시상

- 추진계획 : 자치구별로, 금년도 설치시설 중 가장 우수한 편의시설을
10월중 1개소 선정, 1백만원 시상(2002년부터 매년 실시)

○ 장애인편의증진방안 공모전

- 추진계획 : 10월중 장애인편의시설 증진방안에 대한 공모전 개최, 시상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실시

- 추진계획 : 연간 편의시설 확충정비 우수구 선정 10월중 인센티브 부여
시상금은 자치구별로 편의시설 정비에 사용

※ 평가지표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폭 개선예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운영 (2000년부터 운영)

- 촉진단 : 147명(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22명,
촉진단원은 자치구별 5명씩 125명)

- 추진계획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 홍보·안내, 실태조사 동행·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시설 파악, 구청장에게 신고 및 의견제시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2004년부터 운영)

- 사업목적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설치 필요기술 지원

- 조 직 : 센터장 1명(무보수),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2명

- 추진계획 : 편의시설 설치 자문 및 기술 지원, 편의시설 설치 기술 및
매뉴얼 개발,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및 자치구 등과 연계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보급(3,000부)

- 대 상 :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 공사관련기관·단체 등

3. 장애인복지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 장애인욕구조사에 의거 시설별 연도별 확충방안 수립시행
- 생활시설 확충은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과 연계 확충추진
- 장애인복지관은 1구 1복지관을 원칙으로 추진

□ 2005 확충계획

- 장애인생활시설 : 32(2004)→ 34(2005)→ 36(2006)
 - 2005 신축 : 루디아의 집(경기가평, 실비), 인강원(경기양주, 실비)
 - 증축 2개소(삼성농아원,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
 - 05-06 신축 : 임마누엘재활원(경기포천), 은평재활원(은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65(2004)→ 70(2005)→ 75(2006)
 - 2005 계획 : 성분도복지관(경기광주), 강북구립, 기타3개소
 - 증축 5개소(에덴, 동천, 북부장애인직업재활, 인강원보호작업, 비둘기작업)
- 장애인복지관 : 33(2004)→ 35(2005)
 - 2005 계획 : 성북·금천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 : 5개구(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도봉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61(2004)→ 62(2005)→ 80(2006)
 - 2005 계획 : 성프란치스코 주간보호
- 장애인생산품 공판장건립 (양천 목동, 05 설계 06 완공, 1910백만원)

□ 2005 기능보강사업

-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 45개소 7,433백만원
 - 생활시설 : 17개소 5,824백만원(별첨)

- 직업재활시설 : 28개소 1,609백만원(별첨)

○ 장애인복지관 등 : 37개소 3,437백만원

4. 장애인 자립·재활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효율적인 모델의 개발 및 지원확대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기금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복지관 운영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향상

□ 사업개요

장애인자립지원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10개소
 - 운영성과 분석 후 확대 : 8개소(2004) → 10개소(2005)
 -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포함
 - 사업내용 : 활동보조인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동료상담 등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 600백만원(지정공모200, 일반공모400)
 - 장애인 인식지수 개발·장애인 예술활동사업 등 지정 및 일반 공모
-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 : 30개 품목 500여종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우선구매 품목확대 : 6개 품목 → 가구류, 현수막, 신발류 등 17개 품목
 - 우선구매 비율확대 : 2 ~ 20% → 5~ 20%
 -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운영 : 전시·홍보·판매 지원
 - 판매실적 : 2003년 1,359백만원, 2004년 1,800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 7,449백만원 지원
 - 시설운영 확대 : 58개소(2003)→65개소(2004)→70개소(2005)

-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지원 : 800백만원(지정공모 320, 일반공모 480)
 - 지원사업 : 45개사업 (지정공모 11, 일반공모 34)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989백만원
 - 수화통역센터 6개소(24명), 농아노인회 1개소(1명), 자치구 16개소(16명)

장애인재활지원사업

-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 33개소 32,011백만원
 -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 32개소 39,089백만원
-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지원 : 6개소 718백만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 4개소 2,819백만원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1개소 1,219백만원 지원
 - 약시인 재활사업, 재활정보제공, 컴퓨터보급 및 기자재 수리 등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지원 : 684백만원
 -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 및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의욕 고취
 - 시각장애인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학습지원사업
-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사업 : 65백만원 지원
 - 텔레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전화판매요원 양성
 - 상반기(2월~6월) : 10명, 하반기(8월~12월) : 10명

5.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현 황

- 등록장애인 현황 - 267,365명(2004년 12월)

년 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장애인수	267,365	239,645	213,121	188,660	159,944	116,684

- 미등록 장애인 : 46,930명(추정)
 - 시 출현 장애인(추정) : 314,295명(등록률85.07%)
- 저소득 장애인 현황
 - 기초수급대상 장애인 : 33,687명(등록장애인의 12.6%)
 - 차상위계층 장애인(추정) : 76,466명 (등록장애인의 28.6%)

□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법정지원 적기 시행(23,594백만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본인 및 자녀 교육비
 - 장애인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지원 등
- 차상위계층 : 후원 결연사업 적극 추진
 - 후원자 발굴 → 장애인 결연 → 후원금품 등 지원
 - 2004(4,070구좌 5,000백만원) → 2005(6,000구좌 5,500백만원)
- 일반 장애인 :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로 자립·재활 지원
 - 장애인 복지관 , 수화통역센터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재활지원센터 등 이용 및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및 기금사업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각종 감면 시책 이용홍보
 - 자동차 관련세금, 전기·전화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공영주차요금,
 - LPG 연료사용 허용 및 연료 세금감액
- 미등록 장애인 등록율 제고

-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하여 등록율 제고
- 장애 진단비용 지속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 높은 식품위생환경 조성

1. Well being 음식점 시범육성

음식점의 메뉴판에 업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칼로리, 염분양, 영양소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시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이를 점차 확대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2~12월
- 대 상 : 66개소(Hi 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추진배경

- 식생활 개선 :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면 심장병의 25%, 당뇨병의 50%, 비만증의 80%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료비의 1/3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 생활습관병 예방 : 우리나라 사람의 염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양인 1인 1일 약 10g의 2~3배를 섭취하고 있어 “하루에 염분 10g이하 먹기 운동”으로 고혈압 등 각종 생활습관병을 예방 하고자 함

추진내용

- 영양정보 표시제 실시 :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선정된 66개 업소의 메뉴판에 영양정보(음식의 열량, 영양소 함량, 염분 등)를 표시토록 하고 점차 확대 시행
- 서울특별시영양정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인 내외) : 학계, 의료계 및 전문가를 위촉
- 대시민 홍보(신문, 방송, 각종 매체이용), 무가지(메트로) 등에 다양한 홍보

2.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우수농산물 구매 적극 지도

□ 사업개요

- 『서울 - 전남』 우호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권장

□ 추진계획

- 우리시와 우호협력 관계인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 현재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우선 구입
 - 향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시행시 학교급식소에서 우선구매

3. 『Hi Seoul 식생활정보센터』 설치·운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3. ~ 12월
- 운영확대 : 상설 6개소(서울시1, 자치구5), 순회
 - 자치구 Hi Seoul 식생활정보센터(설치비 부담 : 서울시, 운영비 부담:자치구)
- 구 성 : 건강 체험관, 식생활 체험관, 영양상담실, 전시관 등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계획수립·통보 → 자치구 신청 → 시에서 선정 → 설치비 지원 → 자치구 운영
- 운영방법
 - 『건강증진의 장』 : 영양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체험학습의 장』 : 어린이, 학생들의 체험학습 교실
 - 『영양교육의 장』 : 영양교육실시
- 노인 및 어린이 식단 : 올바른 식생활

□ 사업비 : 식품진흥기금 630백만원 (구지원 500백만원 포함)

4.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영업주의 자율정화 유도과 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점검하는데 따른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4 ~ 12월
- 대 상 : 40,363개 업소(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10개 업종)
- 추진내용
 - 사회적 환경변화로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필요성 대두
 - 영업자 자율정비 및 점검으로 책임성 고취 계기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동기부여를 통한 영업주의 자율 정화의식과 책임 부여
- 중점점검사항
 - 위법사항에 대한 중점 지도 등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단계별 시행
 - 1단계 : 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 2단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자율지도
 - 3단계 : 시·구 공무원 직접 점검

시민건강 보호

1.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적절한 의료시혜가 필요함에도 경제·사회인식·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찾아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의료소외계층 현황

- 차상위계층, 신체·정신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 희귀난치성질환자, 에이즈, 만성성인병질환자 등 특수질환 계층

○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 본인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에이즈감염자, 전염병환자 등
- 기타무료 순회 진료,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 진료

□ 추진계획

○ 계층별 의료소외 현황 파악 및 지원대책 수립(2005년도 중)

○ 공공분야 의료접근 향상

-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역할·기능강화
 - 정신질환, 치매환자, 저소득층 등 진료강화
- 지역보건의료 기능 보강을 위한 방문보건 활성화

○ 민간분야 의료접근 향상

- 산발적인 의료지원 통합관리
- 저소득층 장기요양 기회 부여 : 다인실병상확충, 선택진료 등

⇒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법령·제도연구와 서울시의 의료정책수단 개발 (서울의료원 부설 연구소)

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유아, 학동기 및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목표

- 영유아 예방접종을 증가 : 57%('04년) → 77%('08년)
- 여성건강관리 지표조사 분석
- 재가노인 만성질환자 관리율 향상 : 5%('04년) → 10%('08년)

□ 사업개요

○ 영유아건강관리

- 영유아 등록·관리 : 건강진단, 성장발달측정, 시력관리
- 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대상자 의료비지원
-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및 추후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예방교육 및 의료비지원

○ 여성 건강관리

- 임신부 건강진단 및 여성건강실태조사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선정·지원

○ 노인건강관리

- 대상 : 재가노인 및 거동불능자 등 재택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주민
- 사업내용
 - 교육, 상담, 증상간호, 투약관리 등 직접간호서비스
 -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인력교육 등
 - 전문간호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의료비, 호스피스 등

- 추진방법

- 지역내 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서비스
- 대도시방문보건사업시범추진 : 비정규직 신규 전문인력 채용으로 1인1동 담당제 실시(4개구→6개구)
-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 병원가정간호사업소와 시범가정간호사업소에 의뢰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사업

1) 정신보건사업

- 현황 : 268천명(의료기관 입원환자 91천명, 지역사회대상자 177천명)
- 사업내용
 - 정신보건센터 운영 : 13개소(광역 1, 지역 11, 소아청소년 1)
 -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운영 : 35개소
 - 병원지원형 거주시설운영 : 3개소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2개소

2) 지체장애인 재활사업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의뢰된 장애인과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사람
- 사업내용
 - 지역사회재활거점보건소운영(2개소)
통합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활전문요원 교육 및 장애 인식개선홍보 등
 - 장애인 건강검진
특수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입소장애인 중심으로 해당시설내에서 고기능의 건강검진실시하며 유소견자는 2차검진 실시

□ 소요예산 :16,226백만원

3.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스(SARS) 등 해외유입 신종 전염병과 세균성이질, 홍역 등 유행성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과 확산 차단에 적극 노력

□ 추진방향

- 신종 전염병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 구축
-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접종 확대 및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치료체계 구축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염병관리 인프라 개선

□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환자 발생 현황>

(2004.12월말 현재)

계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유행성 이하선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기타
844	22	32	381	136	176	23	74

- 식중독 등 집단 설사환자는 21개소에서 1,468명이 발생

<관리대책>

- 급성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 확립
 - 방역대책반 운영 : 2005.05~10
 - 역학조사반 편성 가동 : 26개반 156명(보건과 1, 자치구 25)
 -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 55개소(응급실 감시체계 31,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24)
 -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 : 병·의원, 약국 등 675개소
 - 전염병관리요원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 FMIP 2개과정(관리자, 실무자)

○ 급성 전염병 발생을 감소 전략

- 단체급식 환자 발생을 감소를 위한 보균자 찾기 검사 확대
- 집단환자 발생시 대처 능력 강화
 - 자치구 역학조사 대응력 강화, 신속한 환자 치료 및 지원
- 과학적인 도시 위생해충 구제활동 전개
 - 환경친화적 생물학제제를 이용한 선택적 유충구제 집중
 - 월동모기 구제활동 점진적 확대
- 예방접종 강화로 예방가능 전염병 퇴치 조기 달성
 -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접종 누락자 집중 독려)
 - 적기·적절한 예방접종 시행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전 시행, 취약아동 홍역 접종증명 확인

○ HIV/AIDS 예방관리

- 에이즈 감염자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으로 전파 방지 강화
- 에이즈 담당자 전문교육 및 시민홍보

○ 결핵 예방

- BCG 예방접종, 결핵감염자 찾기 X선검사 및 객담검사 강화
- 결핵정보감시체계(TB net) 운영으로 신고체계의 수립

□ 소요예산 : 4,889백만원

4. 생활습관병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 우리나라 성인사망율의 64.1%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교정과 조기발견·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한 질병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및 교육이 미비하므로
-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당뇨병·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실태 및 현황

- 우리나라 성인 사망의 주요원인은 암, 순환기질환, 당뇨병, 만성질환, 간질환 등 5대 질환이 사망률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신체활동부족 과일과 야채 섭취부족, 음주, 흡연 등 임
- 만성질환 유병율
 - 고혈압 : 47.22명/1,000명→472,396명
 - 당뇨병 : 22.70명/1,000명→227,094명

※ 본인 인지율 50%로 실제 환자수는 위 질환자의 두 배로 추정

□ 추진계획

-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실태분석 및 역량 평가
 -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 보건소, 대상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활성화

□ 소요예산 :280백만원

5. 서·남아 지진해일지역 의료지원활동 사항

지난해 12. 26일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우리시 긴급의료지원단을 급파하여 서울시민의 따뜻한 정을 담은 사랑과 희망의 의료·구호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시 위상 제고

□ 의료지원단 파견 개요

○ 진료단 구성

- 1진의료단(23명) : 의사 8명, 간호사 10명, 약사 2명, 행정요원 3명

단장 : 서울의료원 김태규 외 22명

- 2진의료단(23명) : 의사 8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행정요원 6명

단장 : 영동세브란스병원 안철민 외 22명

○ 파견기간 : 2004.12.31 ~ 2005.1.19

- 1진(23명) : 1.05~1.13, 2진(21명) : 1.11~1.19

○ 진료소 : 반다아체 공항에서 20km떨어진 육군병원

□ 일정별 추진경과

○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 2004. 12. 26

○ 서울시 의료지원단 발대식 : 2004. 12. 30

○ 선발대 출국 : 2004. 12. 31

○ 1진 의료지원단 출국 : 2005. 1. 5

○ 2진 의료지원단 발대식 : 2005. 1. 10

○ 2진 의료지원단 출국 : 2005. 1. 11

○ 1진 의료지원단 귀국 : 2005. 1. 15

○ 2진 의료지원단 귀국 : 2005. 1. 21

□ 의료지원단 활동사항

○ 진료실적 : 1,875명

총 합 계	외래	응급실	수술
1,875명	1,081명	667명	127명

○ 구호금 및 물품

- 서울특별시 : \$152,290달러(구호금 및 구호물품)

- 서울시 보건·의약인단체 : ₩3,000만원

○ 의약품 및 구호물품 :17톤(의약품 5톤, 구호물품 12톤)

- 의약품 및 의료장비: 세프라딘, 사이프록사신, 일회주사기 등 224종

- 구호물품 : 분유, 통조림, 비스킷, 생수, 신발 등 35종

· 파견의료진 식료품 : 5톤 별도

□ 보도사항

○ KBS-1TV(1월 13일, 17:30)

- 특별생방송 지진과 해일을 넘어 하나되는 아시아

· 서울시 의료지원단의 반다아체 현지 의료활동 사항 방영(약5분)

○ KBS-1TV(1월 13일, 9시뉴스)

- 서울시의료지원단 활동소개 및 활동장면 방영

○ 경향신문(1월14일, 수도권 9면) : 인니파견 서울시 의료지원단 임무교대

○ KBS 1TV(1월 15일, 아침뉴스, 06:00 약6분간 방영)

- 서울시 의료지원단은 사전준비를 충실히하여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진료 시작한 우수사례로 소개됨

○ 반다아체 지역신문(1월 18일)

- “눈물을 흘리는 환자에게 사랑의 인술을 베푸는 한국인 의사”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건강·안전도시추진

1. 「건강한 서울」 만들기 추진

시민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생활 영역별로 건강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추진

기본방향

- 건강도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추진방법

-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4월 - 12월
 -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 3.10 - 3.11<2일간>
 - 「전국 건강도시연맹」대회 개최 : 11월중
 - WHO건강도시 연맹 회원도시 활동 : 2월 - 12월
-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하이서울 건강엑스포」 개최 : 6. 9 - 6. 12<4일간>
 -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배포 : 3월 - 12월
 - 건강도시·안전도시 홈페이지 구축 : 3월 - 12월
-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건강·안전도시 지표개발 : 3월 - 10월
 - 건강도시 및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 : 2월 - 12월

소요예산 : 500,268천원

2. 「안전한 서울」 만들기 기반조성

시민이 안심하고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고와 손상에 대한 위해요인 저감 활동 및 WHO에서 정한 「안전한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기본방향

- 일상에서의 사고와 손상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
-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통한 연차별·단계별 사업 추진
-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

추진방법

-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지원 : 분야별 10인 이내
-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시범자치구 선정(2개구)
- 안전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 WHO 안전도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 안전도시 홍보활동 강화 : 홈페이지 구축, 슬로건 제작·활용
- 안전도시 추진사업 평가 : 평가지표개발, 설문조사, 평가백서 발간 등

추진일정

-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2월~12월
- 안전도시 홈페이지 개발 : 3월~11월
- 안전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1월중

소요예산 : 382,600천원

3. 건강증진 실천사업

시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목표

-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 (2002년, 55.3% → 2010년, 30%)
-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주3회이상) 증가(2002년, 20.3% → 2010년, 25%)
- 골고루 먹는 인구비율 증가(2002년, 39.5% → 2010년 50%)
- 음주율 감소(2002년, 65.4% → 2010년, 60%)
- 치아우식증 유병율 감소(2002년, 36.7% → 2010년, 34%)

□ 추진방법

-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 및 분위기 조성
 - 건강생활실천사업단 구성·운영, 건강증진 인력교육과정 개발·운영, 자치구 건강증진사업 평가, 워크숍 개최, 시민 건강주간 운영(예정)
- 건강증진 실천 단위사업 추진
 - 금 연 사 업 : 금연사업 점검반 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상담 전화 운영, 금연 홍보물 제작·배포, 금연 캠페인 등
 - 운동·영양사업 : 운동·영양 기초조사, 자치구 평가회, 시범사업실시
 - 절 주 사 업 : 음주실태 조사, 직장단위 음주프로그램 운영, 절주캠페인 등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 예방사업, 구강보건주간 운영,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등

□ 소요예산 : 2,698,775천원 (기금사업 포함: 11,086,989천원)

주요업무계획

1 시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1.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추진
- 2. 노숙인 관리와 자활지원의 내실화
- 3. 푸드마켓 확대 및 푸드뱅크 활성화
- 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 6.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 7. 저소득층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
- 8. 사회복지관 기능재정립 및 활성화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체계 보강

- 1.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 2. 지역별 거점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3. 노인 여가프로그램 보급 확대
- 4.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5. 고령자 취업 활성화
- 6.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적응능력 강화

1. 장애인 이동서비스 강화
2. 장애인 자립재활 기회 확대
3. 장애인 복지·체육시설 확충
4. 장애인 재가복지와 기초생활 지원

4 보건·위생 환경개선

1.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2.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확대
3.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4. 서울세계음식박람회 등 개최
5. 음식점 서비스 수준 글로벌화
6.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 정비
7.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영 내실화
8. 화장실 문화 세계 일류화 달성

5 시민건강증진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1.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2.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
3. 보건·의료 지역역량 강화
4.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5. 민간의료기관 시민이용 편리성 증대

실 태) 저소득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종합서비스 미흡

-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자 현황(2004년 12월)

계	비닐하우스	무허가 판자촌	쪽 방	노숙인 쉼터
9,754명 (88개소)	3,626명 (14개소)	309명 (2개소)	3,295명 (8개소)	2,524명 (64개소)

- 가족해체·핵가족화 진전에 따른 자녀양육·노부모·장애인 부양 기능 약화

추진계획) 개인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가정중심의 종합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

- 저소득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및 상담보조인력 증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 수급자 1,000가구 이상 (6개 동)

▷ 일반 저소득 밀집지역 : 저소득주민 1,500가구 이상 (3개 동)

- 주거이동이 잦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 주민 생활실태 조사

▷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수급자 신청안내 및 선정·보호

▷ 취약지역 편의시설 확충, 방역·의료서비스 제공, 급식지원 등

2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의 내실화

실 태 노숙인 보호시설 64개소, 노숙인 3,222명

- 노숙인 자활사업 운영 : 재활프로그램, 취업알선, 숲가꾸기사업 등

추진계획 노숙인 보호체계 변경 및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

- 수용 위주의 보호체계 → 자활·재활지원체계로 변경
 - ▷ 노숙인별 특성(성별, 연령, 질병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특화 운영
 - ▷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지속적인 상담 및 순찰 실시 : 시설입소 및 안전사고 예방
 - ▷ 노숙밀집지역 방역·청소활동 강화 및 무료 진료 실시
- 쉼터중심의 보호체계를 상담보호센터 중심으로 전환
- 노숙인 진료체계의 개편

3

푸드마켓 확대 및 푸드뱅크 활성화

실 태 26개 기초 푸드뱅크 및 1개 푸드마켓 운영 중

- 푸드마켓(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
 - ▷ 도봉구 창동 전철 4호선 역사입구에 전국 최초 개설(28평) : 2003. 3월
 - ▷ 양천구 전철2호선 신정4거리역 푸드마켓2호점 개설(32평) : 2004.12월
- 푸드뱅크 : 전 자치구에 26개 푸드뱅크 운영

추진계획 저소득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 푸드마켓의 연차적 확대(2003년 1개소, 2004년 1개소, 2005년 2개소)
 - ▷ 2005년까지 4개소로 확대 : 저소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설치
 - ▷ 고정적인 기탁업체 발굴 및 자원봉사 인력 확보
- 보관장비 지원 및 홍보강화(『푸드뱅크 1377』전화)로 푸드뱅크 활성화
 - ▷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연계하는 사업 모델 개발

실 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존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실태
 - ▷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수급자 선정 기피
 - ▷ 일시적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수급자 선정 제외

추진계획)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 비용 지원

-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한 시 자체 특별지원 추진
 - ▷ 근로가능자(경노무) : 「특별취로」 소득보전사업 실시(1일2만원, 월15일 이내)
 - ▷ 근로무능력자(고령·질병) : 「특별구호」 생계지원(1인 월107,400원)
- 월동기간 중 민·관 협력에 의한 이웃돕기 운동 전개 등

실 태) 법정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에 지역간 생계비 차이 미반영

- 물가수준이 높고 주거·교육·교통비 등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서울거주 수급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 최저생계비 충족률 : 대도시 94%, 중·소도시 100%, 농촌 117%

추진계획) 시 자체 부가급여를 통하여 부족한 최저생계비 보전

- 명절, 월동기 등 지출수요가 많은 시기에 추가급여 실시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현물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밑반찬 배달, 방문간호, 후원결연 등
- 최저생계비 충족률 확대 : 현행 94% 수준 → 2006년까지 98%

실 태 자활후견기관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한 자활지원

- 자활후견기관(31개소) :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 운영
- 자활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추진계획 자활능력 배양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활후견기관 합리적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자활공동체 육성 : 40개소(2004년) → 50개소(2005년)
-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을 활용한 자활기반 구축 강화
 - ▷ 지원대상 사업 및 자활공동체 등 점포임대 지원금 확대

실 태 자활사업 대상자 및 프로그램 개발 미흡

- 수급자 위주의 자활사업 추진과 다양한 자활사업제공 미흡
- 자활사업이 기존의 실업대책의 일환(공공근로)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참여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미흡

추진계획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지속 추진

- 자활사업 효율성 추진을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자활사업 참여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등 자활급여 조정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
-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에 상응하는 단계별 자활사업 추진
 - ▷ 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역봉사 → 자활근로사업 → 자활공동체 → 자립·자활
- 간병도우미, 집수리 사업 등 표준화된 자활사업 시행

실 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미흡

- 수익성 위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
-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과잉 또는 중복
- 노인·장애인복지관 등과의 프로그램 차별성 및 독자성 부족

추진계획 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 표준 운영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 사회복지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기능으로 전환 및 특화
- 사회복지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운영내실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체계 보강

1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실 태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 : 65개소 2,194명 (47%보호)

○ '04년 치매노인 인구 55천명, 공공 보호대상 치매노인 4,650명

추진계획 단계별 · 체계적 보호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의 대폭 확충

○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의 건립 추진

▷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 2006년까지 100% 확보

▷ 일반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 2006년까지 50%이상 확보

2

지역별 거점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실 태 노인종합복지관 : 24개소

○ 노인여가활동인구 : 213천 명 → 2006년 266천 명(노인의 36.4%)

추진계획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 24개소(2004) → 26개소(2005)

○ 1구 1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운영

▷ 24개소(95천 명) → 2005년까지 26개소(125천 명)

▷ 2005년도 개관 : 서대문 · 강남

○ 1구 1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완료 후 지역단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실 태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 노인복지시설로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여가 기능 미흡
 - ▷ 경로당 현황 : 2,667개소(등록회원 132천 명)
 -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 464개 경로당

추진계획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2006년까지 확대 운영

- 운영 확대 : 404(2003) → 464(2004) → 520개소(2005)
- 경로당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실시로 자율운영 토대를 구축하고 1구 1거점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 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

- 모니터링 대상 독거노인 현황 : 20,536명(2004) → 27,000명(2005)
-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연락체계 미흡

추진계획 가정방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수혜인원 확대 : 8,117명('03) → 20,536명('04) → 27,000명('05)
- 소방방재본부 119자동신고기 설치·운영사업과 연계 비상 연락체계 구축

실 태 노인의 취업이 어렵고 고령자취업에 대한 사회분위기 저조

- 노인들의 재취업 가능 직종 부족,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 미흡
- 주요 취업직종이 단순노무직에 편중되고 고학력 및 전문직종 부족

추진계획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및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내실화

- 고령자 취업알선 : 9,000명(2003) → 10,000명(2005)
- 고학력, 전문직, 경력직 등 구직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구인처 개발
-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 : 12개 교육과정 연 1,000명 교육실시
-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적극 발굴·추진

실 태 매장위주의 장사관습으로 국토·환경의 훼손 등 제반문제 발생

- 화장·납골·산골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
- 장사시설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피시설 인식화에 따른 장사시설 확보곤란

추진계획 장사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시·구간 역할 분담

- 화장·산골문화로 장사문화 개선 : 시민 화장률 59.4%('02) → 68%('05)
 - ▷ 장사시설 견학, 화장·산골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산골장려금 등 지원
- 시와 자치구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공 장사시설 건립
 - ▷ 화장시설은 서울시, 납골시설은 자치구에서 확보
 - ▷ 자치구별 납골시설 확보 : 2005년까지 확보시 전액(1위당 30만원) 지원

실 태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동편의시설은 부족

- 등록장애인 증가 : 201천명(2003)→ 303천명(2006)→ 398천명(202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86%(208천개소 중 180천개소)
- 대중교통 등 이용편의시설 :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 83%(551대)

추진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지속적인 정비로 「무장애 공간」 실현

- 다중이용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목표 : 86%(2003년) → 95%(2006년)
- 신규시설 설계심사 강화, 설치매뉴얼 제공 등 설계 단계부터 이동권 확인·점검
 - ▷ 기존시설은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 여부 점검·보완
- 200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 ▷ 76개 역사 168대(25%) → 258개 전 역사 644대(100%)
- 200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300대 도입
 - ▷ 간선버스 노선에 운행,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콜택시 보완수단으로 활용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내실화 : 25대
-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door-to-door서비스 확대 : 2개소 36대 → 2개소 56대('05)
- 「장애인 해피콜 택시」 확대 : 개인택시회원 734대 → 1,200대(2006년)

2

장애인 자립재활 기회 확대

실 태 장애인 고용률 저조, 정보·기술 부족 → 낮은 월평균 소득

- 300인 이상 기업체(1,154개소)의 장애인 고용률 0.95%(2003.12.31 현재)
 - ※ 장애인 의무고용률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35조)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 : 108만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46%)

추진계획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 5개소(2003) → 17개소(2006년)
- 직업재활시설 확충 : 58개소(2003) → 75개소(2006)
- 주·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 155개소('03) → 223개소('06년)
- 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 : 국가, 공공단체 우선 구매(27개 품목 200여 종)

3

장애인 복지·체육시설 확충

실 태 복지시설 부족,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보급 미흡

- 장애인 체육시설 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37개소

추진계획 1자치구 1복지관 설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복지관 확충 : 32개소(2003) → 37개소(2006)
 - ▷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시설부족에 따른 수요 충족
-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 5개소(2003) → 6개소(2006)

실 태 재가복지서비스 미흡

-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부진 : 23개소 (32개소 중) 운영
 - ▷ 국비지원(50%) 불확실 : 국비지원 15개소, 미지원 8개소
-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지원 : 장애수당·자녀교육비·의료비 등

추진계획 재가복지봉사센터 확충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속 지원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 26개소(2003) → 36개소(2006)
- 「재가여성장애인 도우미」 교육·파견 : 7개 복지관 운영
 - ▷ 재가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가사 등 지원
 - ▷ 운영결과 분석 후 → 8개 자치구로 확대(2006년)
- 장애인 생활안정 지속적 지원 : 장애수당·자녀교육비·의료비 등
 - ▷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1인당 월90천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0천원)
 - ▷ 장애아동 부양수당 : 1인당 월50천원
 - ▷ 자녀교육비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등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차 진료기관 진료시 : 750원 지원
 - 2·3차 진료기관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지원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구당 1,500만원(연리 4%,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재활보조기구 구입지원
 -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음양신호기 리모콘, 휴대용 무선호출기 등

1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실 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증 미흡

- 제조·가공 및 판매식품의 안전관리대상 광범위

추진계획 서울지역 유통량의 안전성 관리 강화

- 농·수산물 검사 물량 및 항목 연차별 확대
- 민·관합동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시민신고제도 적극 전개

2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확대

실 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확보

- 부적합 식품 신속회수 및 정보제공 확대운영

추진계획 식품안전전산망 단계별 확대 운영

- 식품안전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내실화
 - ▷ 부적합 식품 동시동보 대상 확대 : 658(2004년) → 1,000(2005)
 - ▷ 식품안전교실 운영(식품안전 기초자료, 부적합식품 사례 제공 등)
- SMS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ARS 서비스 등 기능 확대
- 전국 연계 시스템으로 확대 검토(2006)

3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실 태) 먹는 물 이용도 증가

- 먹는 물 공동시설 : 380개소, 1일 이용인구 약 79,000명
- 서울시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 54종(국내산 48종, 수입 6종)
- 정수기 제조·판매업소 : 93개소

추진계획)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안전 관리(연 6회) 및 등급제 실시
-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관리 : 연 2회
- 유통 중인 정수기 수거검사 등 정수기업체 지도관리 강화 : 연 2회

4

서울세계음식박람회 등 개최

실 태) 서울에서 개최되는 종합적인 국제음식축제가 없음

- 현재 개최되고 있는 음식축제는 우리 전통음식의 먹거리 위주로 구성
- 김치축제, 전통주 등 개별 품목의 축제로서 국제적인 종합 음식축제 부재

추진계획) 국내음식관련 산업의 세계화 기반 마련

- 2005세계음식박람회 개최(SIFE 2005) : 2005.4.6~10(5일간)
 - ▷ 일본, 독일 등 12개 국 참가(Hi-Seoul서울사랑음식축제와 연계 추진)
- HOFEX 2005 박람회 서울관 설치지원 : 2005. 5월 둘째주
 - ▷ 서울의 전통음식(백김치, 송편, 식혜) 등 전시 및 시연
- 제1회 서울세계음식EXPO 개최 지원 : 2005.10월중

실 태 중·소형음식점 위생·친절 및 시설수준 미흡

- 영업장 면적 20평 미만 업소가 전 업소의 70.2%(118천 업소 중 83천 업소)
- 영업자에 대한 위생·친절교육을 통하여 시설 환경 개선

추진계획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음식점 지원·육성 강화
 - ▷ 용자지원금 확대(식품진흥기금규칙 개정) : 목표 50억원
 -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 8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인센티브 지원 : 매년 12,000개 업소
 - ▷ 음식점 화장실 개선비 지원 및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선정
-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매년 3만 명
- 현장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 연간 21,000개 업소

실 태 청소년 유해업소의 새로운 불법행위 증가

- 민관합동단속반 운영 : 1일 26개 반 160명
 - ▷ 1개 반 6~7명(시·구 3, 경찰 1, 시민 2, 소방 1)

추진계획 지속·반복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업소 근절

-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정비 단속대상 및 범위 확대
 - ▷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법규위반업소 정비
- 시민감시체계 확립 및 시민신고 활성화로 시민참여 유도
 - ▷ 시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홍보 강화(1만원~30만원)

7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영 내실화

실 태) 시민감시제도 활용범위의 제한 및 감시체계 미흡

- 1995년부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실시 : 매월3~4회

추진계획) 식품감시활동에 시민 참여 확대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운영 내실화
 - ▷ 위촉인원에 대한 실무향상교육(연2회), 운영협의회 개최
- 식품안전 취약지역 자율위생 지도·점검
 - ▷ 상반기 : 식품자동판매기
 - ▷ 하반기 :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8

화장실 문화 세계일류화 달성

실 태) 다중이용 소규모 화장실의 시설 및 청결관리 미흡

- 관리대상 : 다중이용 화장실 10,000개소
- 도심지 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비율 부족, 고지대 등 취약지역 화장실 수준 미흡

추진계획)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상태유지

-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및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119개소), 고지대 등 취약지역(126개소) 개선
- 연면적 10평 이상 음식점(6만 개소) DB 구축 및 시설 개선 추진
- 음식점화장실 개선 편의용품비 지원 : 업소당 40만원
- 시민단체 및 홍보를 통한 화장실 개방, 시민의식 개선

시민건강증진 확대 및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

1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실 태 시립병원 시설·장비의 현대화 지연,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접근도 불균형 심화 및 저해요인 파악 불충분

-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 및 근거리 의료서비스 확보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필요

추진계획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저소득시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 시립병원 시설확충 : 10개 병원 3,777병상('04) → 12개 병원 4,287병상
-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 : 완료 3개소, 추진중 4개소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강구
- 자치구 보건소 노후장비 개선 및 기능 재정립

2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

실 태 인구 과밀 등 도시화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안전 저해요인을 줄여가기 위한 도시건강정책이 적극 요구됨

추진계획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 등 법규정비
-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다양한 분야 참여, 시민의 주도적 역할 강화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한 상호 발전방안 모색
- 주요사업
 - ▷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지표개발 및 선정
 - ▷ 생활세팅사업, 시민생활습관 변화 유도, 안전증진 시범사업 등

3

보건·의료 지역역량 강화

실 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사회위험요인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필요

-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추진계획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 지역사회관리체계 강화 :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개발
-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시설 확충
 -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알코올 의존자(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유도
 - ▷ 영유아 예방접종률 향상 : 57%(2004년) → 62.72%(2005년)
 - ▷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재가노인 만성질환자 관리율 향상

4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실 태 법정 전염병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신종질환 발생

- 주요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

구 분	급 성 전 염 병					에이즈 감염자	만성전염병	
	계(명)	콜레라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홍역		결핵	성병
2003	265	1/30	37/15	170	12	246	12,633	5,888
2004	200	4/26	18/16	131	5	201	12,000	4,100

추진계획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능 및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의 사전예방 감시체계 강화,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급성전염병 및 AIDS예방에 대한 대시민 홍보·교육 강화
- 만성 전염병(결핵, 성병, 한센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실 태) 위법 의료광고 증가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 시민건강 위협

- 의약분업 이후 병원 간 과당경쟁으로 허위·과대광고 증가
-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사례 및 불량·부적합 의약품 유통

추진계획) 의료기관, 의약품 과대광고 감시 및 자율감시 강화

-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 의약품 감시단을 운영하고 수입의약품 및 시중유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 강화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감시제 운영